



김제의용소방대 지진 피해 순찰점검

김제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김제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김제시 관내 피해 지역에 16곳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지역이 없는지 예방 순찰 및 피해점검에 분주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 부안에서 올해 최대인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이 잦지 않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였기에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영남 등 전국 전역이 흔들림을 느꼈다. 김제시 역시 부안군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13일 오전 10시 기준 16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12일 지진발생 당일부터 김제소방서는 긴급구조출동 대체에 돌입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추가 지진 대비 지자체 관계기관 등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김제의용소방대 대원들 역시 12일 지진 발생 시점부터 비상근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하고 관할 파난약자세대 안전점검 및 노후 건축물 인근 예방순찰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소방서-무주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무주소방서는 17일 무주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가진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장애인, 취약 세대의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견인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은 김운철 무주소방행정과장과 비롯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 제공 △소방안전 분야의 효율적인 상호 지원 확대 △안전 취약 세대 등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 홍보

남원소방서는 17일, 본격적인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전선 손상 여부 및 무거운 물체에 놀리는 곳 없게 하기 △에어컨 내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기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틈틈이 가동을 멈추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태권도 체험하려고 미국에서 왔어요”

태권도원, 관광객 북적… 7월까지 미국·독일·캐나다·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 방문 확정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이성구 사범의 Lee's Martial arts 수련생과 기죽 등 60여 명이 태권도원을 찾아 평원관에서 태권도 수련과 태권도 콘텐츠 체험 시간을 가졌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외래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6월과 7월, 태권도원을 방문할 해외 태권도 수련·체험을 겸한 태권도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부터는 미국 미네소타 김현식 사범 일행을 시작으로 텍사스 양재천 사범, 브라질 김요진 사범, 독일 유승식 사범의 도장을 비롯해 캐나다, 미국 LA, 필리핀, 국내 거주 외국 유학생, 재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등 태권도 관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1주일 가량 태권도원에 머물며 수련과 함께 힐링 태권체조 등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체험을 즐길 예정이다.

특히, 7월 18일부터 열리는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기간에는 수련생을 포함한 외래 태권도 관광객들이 이 대거 태권도원을 찾아 세미나와 겨루기·풀싸 대회, 태권도 투어를 비롯해 전복권 문화 탐방에도 나서는 등 태권도를 활용한 외래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주, 태권도원을 찾은 미국 텍사스주 Lee's Martial arts의 Cindy Lee는 "6백 명에 달하는 우리 도장 수련생 가운데 60여 명 규모로 매년 한국을 찾고 있다. 올해는 이제 수련을 시작한 어린이부터 3단까지 함께 와서 제



주도와 부산 관광에 이어 태권도원에서는 힐링 태권체조 체험과 시범공연 관람 등을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익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힐링 태권체조와 같이 웃으면서 체험하는 태권도 콘텐츠를 처음 만나본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태권도원을 찾은 보람을 느낀다"라며 태권도는 어디에서든 인기 있는 무예로 도복 입은 모습 자체에서 자긍심을 갖는다면 내년에도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즐길 태권도원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초부터 미국 보스턴, 호주,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에서 태권도 수련과 체험 등 태권도 관광을 위해 태권도원을 찾고 있다"며 "6월부터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태권도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무예와 스포츠로서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외래 스포츠 관광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태권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 유치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17일 오전 장수경찰서를 방문한 승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13여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찰서를 방문한 어린이들은 눈높이에 맞춰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며 경찰 업무에 대해 알아본 후 경찰 재복을 착용하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함께 배우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교통순찰차에 탑승해보고 무전기 교신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어린이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찰 업무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여 경찰관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경찰서, 초등학생 대상 청사 견학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학곤)는 17일 정읍 정일초등학교 유치원, 1~3 저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정읍경찰서 청사 견학을 실시했다.

청사 견학은 경찰 직업 소개 교육, 경찰 장비 체험, 112 상황실 견학, 실내 사격장 견학, 교통 순찰차 체험활동으로 경찰서 내·외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장은 청사 견학을 통하여 어린 나�이에 막연하게 경찰을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리며, 나아가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소통방 시민공감제안 정책에 대한 심사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정읍소통방'에 시민이 제안한 '40~50대 중장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소통방은 시정발전 전략 등의 아이디어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공감 수 50건이 넘으면 시민소통위원회의 심사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또한 시정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왕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실험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6-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평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의성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